

중국 애국주의 영화 열풍 현상 연구:  
〈특수부대 전랑2(战狼II)〉(2017), 〈홍해행동(红海行动)〉(2018)을  
중심으로\*

강내영\*\*

<目 次>

1. 들어가며
2. 구체적 작품분석: 〈특수부대 전랑2〉, 〈홍해행동〉, 〈진군대업〉
3. 흥행 요인과 사회적 의미
  - 1) 영화산업 급성장과 대흥행 영화의 출현
  - 2) 정부의 정층설계(頂層設計) 강화와 '헤게모니 동의형 범주선율 영화'
  - 3) 중국몽과 '글로벌 대국주의(Great Power Nationalism)' 욕망의 현현(顯現)
  - 4) '유사-할리웃 스타일(pseudo-hollywood style)' 전략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당신이 해외에서 위협에 처할 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뒤에는 강대한 조국이 있습니다.(中華人民共和國 公民, 當你在海外遭遇危險, 不要放棄! 請記住, 在你身後, 有一個強大的祖國)”(〈특수부대 전랑2〉). 단호하고도 강렬한 이 짧은 대사는 중국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 〈특수부대 전랑2〉의 마지막 대사이다. 〈특수부대 전랑2〉는 아프리카

\* 이 논문은 경성대학교 2018년도 학술연구비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8일 '중국문화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부교수

에서 중국 교민을 구출하는 전직 특수부대 요원의 활약을 다룬 액션영화로, 2017년 7월 중국에서 개봉하여 56.8억 위안이라는 대흥행을 기록하였다. 2018년 2월에 개봉된 <홍해행동>는 아랍국가에서 중국 교민을 구출하는 중국 특수부대원들의 활약을 다룬 액션영화로 중국영화사상 2위 흥행인 36.5억 위안을 기록하였다.<sup>1)</sup>

두 편의 영화는 중국 특수부대원들의 해외활약상을 다룬 액션영화이며,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건 영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더욱이 1년 기간이 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중국영화사상 최고의 흥행 1위, 2위 영화가 공교롭게 애국주의를 내건 군사액션영화인 점도 특이한 현상이다. 기존에 <건국대업(建國大業)>(2009), <건당위업(建黨偉業)>(2011)과 같은 애국주의를 표방한 주선율 영화를 상영되었지만 이번과 같은 대흥행으로 이어진 전례는 없었다. 또한, <몽키킹2(西游记之孫悟空三打白骨精)>(2016), <쿵푸요가(功夫瑜珈)>(2017)와 같은 액션영화가 흥행의 상위권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애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와 같은 애국주의 군사액션영화의 대흥행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대흥행을 몰고 온 '애국주의' 영화 열풍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 사회맥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애국주의 영화 열풍을 대표하는 두 편의 대흥행 영화 <특수부대 전량2>, <홍해행동>과 2017년 개봉된 또 다른 애국주의 주선율 영화② <건군대업>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sup>3)</sup> 두 편의 흥행 영화 외에 <건군대업>

1) 尹鴻, 「2017年中國電影備忘」, 『電影藝術』 379期, 2018. 4. <中国内地电影票房总排行>, <https://www.douban.com/doulist/1295618/> 2018. 6. 4.

2) 주선율(主旋律, mail melody)영화는 사회주의혁명정신과 애국주의 등 정치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창작된 영화이다. 주선율이라는 용어는 1987년 3월 정부가 주관한 전국국영영화창작회의(全國故事片創作會議)에서 “주선율을 널리 알리고, 다양화를 견지하자(弘揚主旋律, 堅持多樣化)”라는 구호 속에 처음 등장했다. 주선율영화는 2001년 WTO가입 이후 개방화와 산업화라는 영화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운 변환(transformation)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내영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전통적 주선율은 대중성과 상업성을 적극 도입한 '신(新)주선율'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블록버스터 <영웅>을 기점으로 중국식 대작 상업영화 속에 주선율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개입하는 '범(汎)주선율'로 변환되고 있다. 강내영, 『중국영화의 오늘』, 산지니출판사, 2015. 184-187쪽 참조.

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애국주의' 영화의 흥행 원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앞의 두 편과 마찬가지로 〈건군대업〉은 애국주의를 전면에 표방한 대작 영화였지만 흥행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세 편의 '애국주의' 영화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인 '애국주의' 영화 대흥행의 원인을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해 '구체적 영화텍스트 분석'과 '컨텍스트적 문화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방법론을 도입할 것이다. 먼저 세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영화텍스트(text) 분석을 수행한 후, 컨텍스트(context)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애국주의' 영화의 대흥행이 갖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사회맥락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연구대상인 각 영화에 대한 내러티브, 영화미학, 주제의식과 이데올로기 등 영화텍스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3장에서는 영화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애국주의 영화 열풍이 '산업', '정책', '영화미학', '주제의식' 등 영화환경과 갖는 사회맥락적 상관관계와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4장에서는 애국주의 영화가 중국영화사에 차지하는 의의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구체적 작품분석: 〈특수부대 전랑2〉, 〈홍해행동〉, 〈건군대업〉

- 1) 〈특수부대 전랑2〉(战狼, Wolf Warriors II, 2017)  
- “글로벌 보편주의와 대국주의 욕망은 어떻게 조우하는가”

〈특수부대 전랑2〉는 액션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우징(吴京)이 감독, 시나리오, 주연을 맡은 123분 분량의 액션영화이다. 2억 위안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영화는

3) 〈건군대업〉은 한국에서는 〈후난성 전투〉라는 영화 제목으로 상영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국대업', '건당위업', '건군대업' 3부작으로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도 '건군대업'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글에서는 〈건군대업〉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2017년 7월 27일 중국에서 개봉되어 56.8억 위안이라는 중국영화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금계장 영화제에서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하였다. 이 영화는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내전 속에 중국 교민을 구출하는 전직 특수부대원의 활약을 다루고 있다. 시퀀스(sequence)에 따른 서사의 분절은 아래와 같다.

i) 프롤로그: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근역, 무장 해적들이 상선을 습격하자 특수요원 령평이 해적을 제압한다. ii) 임무 중 사망한 동료 부대원 고향. 유해를 들고 죽은 동료의 집을 찾아가는데 개발업자들에 의해 동료의 집이 철거당하자, 령평은 분노하고 이를 저지하다가 개발업자를 죽이고 감옥에 간다. iii) 아프리카 가상의 국가에서 령평은 군인이었던 약혼녀마저 반군에 의해 살해당하자 범인을 찾아 나선다. 반군의 습격으로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고, 중국 해군 함대는 UN의 승인 없이는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령평은 자신이 돌봐주고 있는 소년 툰두가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약혼녀를 살해한 총알이 반군의 것임을 알게 되자, 중국의사와 47명의 중국 노동자를 구출하기 위해 임무를 자원한다. iv) 반군들이 '라만라' 바이러스 항체연구자 천박사를 잡기 위해 중국협력병원으로 쳐들어온다. 천박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반군들 앞에 나섰다. 총에 맞아 죽는다. 이때 령평이 나타나 반군들을 제압하고 미국 여의사 레이첼과 천박사의 아프리카 양녀 파샤를 구한다. v) 령평과 레이첼 일행은 중국인 노동자를 구출하기 위해 중국 합작 공장으로 향한다. 반군들은 항체를 가진 아프리카 소녀 '파샤'를 잡기 위해 공장으로 쳐들어오고, 령평 일행은 공장 내 노동자들과 합심하여 반군을 막아 낸다. vi) 령평이 라만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레이첼과 공장을 떠나게 된다. vii) 반군들은 공장을 다시 공격하여 장악하고, 파샤의 혈액을 수혈한 령평은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공장으로 다시 간다. 주력 반군이 빠진 사이 령평은 공장을 다시 되찾는다. viii) 최후의 결전: 반군 주력부대가 탱크를 앞세워 공장을 총공격하고 UN 헬기를 격추시킨다. 령평과 중국인 일행은 이에 맞서고, 이 상황이 휴대폰을 통해 알려지자 UN 승인 속에 중국 함대는 미사일 공격을 하여 반군을 격퇴한다. 반군 용병대장과 령평은 최후의 결투를 벌이고, 약혼녀를 죽인 총알의 주범인 용병대장을 죽인다. xi) 령평 일행은 노동자들을 이끌고 중국 함대로 간다. 도로에 군인들이 가로막고 있자, 령평은 오성홍기를 들고 앞장서 간다.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 클로즈업 된다. "당신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할 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뒤에는 강대한 조국이 있습니다."

x) 에필로그: 령평에게 죽은 약혼녀 동영상 전달되고 새로운 임무가 시작된다.

〈특수부대 전량2〉는 기존 액션영화와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볼거리와 액션장면을 선보인다. 수중촬영을 동원한 액션과 스펙타클한 전투장면으로 영화의 박진감을 살리고 있다. 또한, 미국 할리우드 배우 프랭크 그릴로(Frank Grillo)가 반란군 용병대장 역을 맡고, 조셉 트라파네즈(Joseph Trapanese)가 영화음악을 맡으며 글로벌 중국영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 영화는 여러모로 할리웃 영화의 스타일과 닮아 있다. 탱크전과 같은 스펙타클(spectacle) 장면을 넣어 볼거리전략을 강화했고, 령평과 미국 여의사 레이첼 사이의 키스와 로맨스가 가미되었고, 무엇보다 주인공 령평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휴머니즘을 체현한 할리웃의 영웅(hero) 캐릭터와 유사하다. 중국영화이지만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아프리카 국가이며 주인공은 영어를 사용하는 글로벌 휴머니스트이다. 령평의 영웅적 활약은 대의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뿐 아니라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 중국 교민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애국심이 기저에 깔려 있지만,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아프리카 소년 툰두가 엄마를 데려와 달라고 호소하고, 약혼녀를 살해한 총알이 반군의 것임을 확인하면서 인질구출을 위한 위험한 임무에 자원한다. 이러한 할리웃 캐릭터와 스타일의 차용은 글로벌 영화로 확장해 나가려는 최근 중국 블록버스터 영화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다. 장이모우 감독이 〈그레이트 월(The Great Wall)〉(2017),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钗)〉(2012)에서 세계적인 할리웃 배우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글로벌 확장을 시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영화 곳곳에 ‘중국 기표’와 애국주의 감성코드를 배치하여 중국 관객들의 자부심과 정서적 교감을 극대화한다. 영화 속 중국협력병원은 아프리카에서 전염병 퇴치와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도 중국 해군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UN의 승인 없이는 반군을 공격하지 않는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중국 기표’는 글로벌 보편주의에 입각한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소프트파워전략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영화의 주제의식은 결국 '애국주의'이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극적인 순간마다 등장하여 분위기를 주도하며, 주인공이 오성홍기를 어깨에 두르고 교민들과 탈출하는 마지막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영화의 마지막 자막대사는 클로즈업된 중국 여권을 보여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당신이 해외에서 위협에 처할 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뒤에는 강대한 조국이 있습니다.”로 끝맺는다.

## 2) <홍해행동(紅海行動, Operation Red Sea)>(2018년)

- “글로벌 대국주의 내셔널리즘의 정체성(identity)을 보여주는 영화”

이 영화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정(海政)TV예술센터와 민영영화사인 보나(博納)영화사 등이 합동으로 제작한 138분 분량의 전쟁액션영화이다. 5억 위안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트윈 이펙트(千機變)>(2003) 등을 연출한 홍콩 감독 린차오셴(林超賢)이 연출을 맡고, 황징위(黃景瑜), 장이(張譯) 등의 스타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다. 2018년 2월 16일 중국에서 개봉되어, <특수부대 전량2>에 이어 중국영화 사상 두 번째 높은 흥행인 36.5억 위안의 박스오피스 흥행을 기록했다. 2018년 4월 베이징국제영화제에서 시각효과상, 제25회 베이징대학생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중국해군 특수부대 교룡돌격대(蛟龍突擊隊)가 내전에 빠진 가상의 국가에서 중국 교민을 구출하는 활약을 다룬다. 시퀀스에 따른 서사의 분절은 아래와 같다.

i) 소말리아 해역, 무장 해적의 습격을 받은 중국 상선으로 중국 교룡부대원들이 출동하여 해적들을 제압한다. ii) 내전 발발: 중동 지역 가상의 공화국 이베리아에서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내전이 발발한다. 테러집단 사카는 바이러스연구소를 습격하고, 중국 대사관 직원들은 공장에 갇힌다. 중국 해군 함정에서 교룡부대가 출동한다. iii) <첫 번째 위기 및 전투> : 교룡부대원들이 대사관 직원을 구하러 가고, 테러리스트와의 전투가 시작된다. 현지 민간인 몸에 두른 폭탄을 교룡부대원이 목숨을 걸고 구한다. iv) <두 번째 위기 및 전투> : 교룡부대 여기자 사난 구출. 샤카 테

리집단은 중국 교민 여성 1명을 잡아가고 참수를 예고한다. 교룡부대와 여기자 일행은 사막을 횡단하다가 샤카 집단의 습격을 받고 총격전 벌이며 위기를 넘긴다. v) 〈세 번째 위기 및 마지막 전투〉 중국 여성 인질 구출 작전: 교룡부대원들과 샤난 기자 일행은 중국 교민 덩메이를 구하기 위해 민간인 마을에 들어간다. 샤난을 사로잡은 테러리스트들은 참수를 준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룡부대원들은 전투를 시작한다. 중국 해군 함정은 지원에 나서고, 부대원들의 희생 속에 중국 교민은 결국 구출된다. vi) 에필로그: 중국 해군 함정 위 추모식. 해군 정복 입은 특수부대원들 위로 오성홍기가 휘날린다.

이 영화 역시 〈특수부대 전량2〉와 마찬가지로 특수효과를 활용한 수준 높은 영상으로 새로운 대작 액션영화의 성취를 보여주었다.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오는 장면과 폭탄에 날러가는 부대원 장면을 슬로우모션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거나, 특수효과로 처리한 사막 모래폭풍 장면을 삽입하여 영화 속 박진감을 고조시킨다. 또한, 빠른 교차편집으로 전투상황을 보여주면서 긴박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한다. 반군이 연구소를 습격하는 그 시간, 부대원들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고, 저격수끼리 목숨을 건 총격전이 벌어지며, 탱크 전투 장면까지 이어지는 교차편집을 통해 1개의 전투장면 씬(scene)에 3-4개의 전투장면이 들어가 극적 긴박감을 고조시킨다.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교룡부대원의 캐릭터이다. 교룡부대원들은 강인한 군인정신과 정의감으로 충만한 슈퍼히어로들이다. 저격수, 폭탄 제거, 탱크 운전 등 환타지에 가까운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잘 생긴 남성들이다. 이들의 활약은 마치 1980년대 미국 할리웃 액션영화인 〈델타포스(The Delta Force)〉, 〈람보(Rambo)〉시리즈의 주인공들을 연상하게 한다. 이 영화는 할리웃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은 스펙타클한 영상촬영과 강인하고 매력적인 부대원들의 캐릭터가 적절히 배합되면서 수준 높은 중국 웰메이드 대작 영화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다.

영화의 핵심적 메시지는 ‘애국주의’이다. 해외 중국 특수부대원들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통해 글로벌 보편주의에 입각한 애국주의를 강조한다. 영화 속 특수부대

원들은 국제승인 없이 타국 영해를 침해하지 않으며, 세계 평화를 중시하는 정의감이 충만한 군인들이다. 이들은 외국에서 능수능란하게 영어를 사용하며, 현지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현지 주민을 보호하고 교민들을 구출하는 평화와 정의의 수호자들이다. 또한, 전투장면에서 교룡부대원들의 군복에 새겨진 오성홍기를 자주 보여주며, 마지막 함선 위 추모식에서 대형 오성홍기가 휘날린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중국 해군이다. 이곳은 우리의 영해이다. 즉각 떠나라”라는 중국 함대의 방송을 자막으로 보여주며 “강자무구, 강자무적(강자는 두려움이 없고 적수가 없다, 强者無懼 强者無敵, conquer fear, conquer All)”라는 자막으로 영화는 끝맺는다.

이 영화는 아랍 예멘에서 실제 발생했던 중국 교민 구출 작전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해외 특수부대원들의 활약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면서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은 중국 대중의 ‘글로벌 대국주의 내셔널리즘’의 욕망을 표출한 영화이다.

### 3) 〈건군대업(建軍大業, The Founding of an Army)〉(2017)

#### - “주선율 영화의 공허한 애국주의”

이 영화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영화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영화사 중국영화그룹(中國電影集團)과 민영영화사인 보나영화사(Bona Film),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팔일영화제작소(八一電影制片廠) 등 국유영화사와 민영영화사가 공동제작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2000년대를 대표하는 주선율영화인 이른바 ‘건국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 편이다.<sup>4)</sup> 〈건군대업〉은 중국 영화그룹 대표를 역임한 한산평 감독이 총제작을 맡고, 〈무간도〉시리즈를 연출한 홍콩 감독 리우웨이창(劉偉強)이 연출을 맡았으며, 리우예(마오쩌둥 역), 주아원(저우언라이 역), 황즈충(주더 역) 등 중국을 대표하는 젊은 스타배우들이 대거

4) ‘건국시리즈’ 첫 번째 영화 〈건국대업(建國大業)〉은 200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 기념작으로 제작되었고, 두 번째 영화 〈건당위업(建黨偉業)〉은 2011년 중국공산당 건립 90주년 기념작으로 제작되었다.

참여하였다. 중국 대륙에서 〈특수부대 전량2〉와 같은 날인 2017년 7월 27일 개봉되어 박스오피스 4억 위안을 기록하며 그해 흥행 40위를 기록했다.<sup>5)</sup>

영화는 1927년 4·12사건 이후 국민당의 공산당 탄압이 본격화되자, 8월 1일 저우언라이, 주더 등이 일으킨 남창기의(南昌起義)와 9월 9일 마오쩌둥과 루더밍 등이 후난성 동부와 장시성 서부에서 일으킨 추수봉기 등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시퀀스에 따른 서사의 분절은 아래와 같다.

i) 프롤로그: 1927년 4월 12일 상하이 노동자 시위에 대해 국민당 군대가 총기를 발포하고 학살한다. ii) 1927년 국민당 정부의 공산당 탄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저우언라이 등이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고, 마오쩌둥은 농민 중심의 무장투쟁을 주장한다. iii) 1927년 8월 1일 저우언라이와 허룽 등이 주도하여 남창기의가 일어난다. iv) 1927년 9월 호남성과 강서성에서 루더밍과 마오쩌둥이 주도한 추수봉기가 일어난다. v) 남창기의 이후 폐퇴하던 공산당은 산허바(三河壩)에서 국민당의 공격을 받고, 3천명으로 3만명에 맞선다. 주더 장군의 지휘하에 특공대가 차출되어 적의 진격을 막고 장렬히 전사한다. vi) 장제스와 송메이링 결혼식(귀족, 상류층, 자본계급) 장면과 마오쩌둥(농민), 주더(군대), 저우언라이(지식층)가 정강산에서 합류하는 장면을 대비하여 보여준다. vii) 에필로그: 정강산에서 군대를 조직하였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건된다. “중국인민해방군 90주년에 바칩니다” 자막으로 마무리된다.

이 영화는 최근 주선을 영화의 대중화 경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대규모 군중을 활용한 스펙타클한 전투장면, 스피디한 편집기교, 화려한 영상을 바탕으로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적 요소와 결합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미남 스타배우들을 집단적으로 캐스팅하고, 그들의 동작에 슬로우모션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청춘의 애국심을 낭만적으로 연출하고 있다.<sup>6)</sup>

이 영화는 공산당과 국민당을 선과 악, 동지와 적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으로 구분하면서, 공산당과 사회주의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영화 속 국민당 장제스

5) 〈中国内地电影票房总排行〉, <https://www.douban.com/doulist/1295618/> 2018. 6. 4.

6) 실제 역사에서도 1927년 당시 사회주의혁명은 젊은 혁명가들이 주도하였으며, 당시 저우언라이 29세, 덩잉차오 23세, 천이 26세, 허룽 31세, 덩샤오핑 22세였다.

총통은 젊은 공산혁명을 회유하거나 칼로 잔혹하게 죽이는 악인으로 묘사되며, 왕징웨이 또한 일반 민초들의 삶과 동떨어진 화려한 귀족생활을 즐기는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이 영화는 공산당과 국민당이라는 대립구도 속에 사회주의혁명의 숭고한 이상을 위해 희생한 젊은 혁명가들의 희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산허바 전투에서 주력군의 후퇴를 위해 특공대에 자원하고 전사한 젊은 군인들의 희생을 부각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산허바 전투를 기리며 “언젠가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해 복수할 것이다”고 다짐하며, “중국인민해방군 90주년에 바칩니다”라는 자막으로 끝맺는다. <건군대업>은 정부이데올로기 선전영화인 주선율 영화의 새로운 대중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다룬 사회주의혁명과 애국심 예찬에 집중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도식적인 과거의 정부이데올로기 영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3. 흥행 요인과 사회적 의미

#### 1) 영화산업의 급성장과 대흥행 영화의 출현

<표1> 중국 영화산업 통계와 현황<sup>7)</sup>

년도	2009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박스오피스(억인민폐)	43	62	217	296	440	457	559
박스오피스성장률(%)	-	-	25.7	34.7	53.5	3.5	22.3
시장점유율(%)	48	43	45.7	45.5	38.4	58.3	53.8
극영화 제작수(편)	456	526	638	618	686	772	798
실제상영 영화수	-	-	267	321	296	378	376
제작수 성장률(%)	-	-	-14.4	-3.1	11	12.5	3.4
스크린수(개)	4,723	6,256	18,195	23,592	31,627	41,117	50,776
관객수(억명)	2	2.86	6.1	8.3	12.5	13.7	16.2

7) 侯光明, 『中國電影產業發展報告』, 中國電影出版社, 2017. 尹鴻, 「2017年中國電影備忘」, 『電影藝術』379期, 2018. 4. 참조.

중국영화는 2001년 12월 WTO가입 이후 연평균 25%에 달하는 놀라운 매출액 성장세를 보여왔다. <표1>과 같이, 2017년 559억 위안, 2016년 457억 위안의 박스오피스 매출액 규모를 보이며, 세계영화시장 1위 북미 영화시장의 58% 정도에 달한다.<sup>8)</sup> 최근 2017년, 2018년 중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8.3%, 53.8%를 보이고 있으며, 비록 외화 수입제한 정책 속의 시장경쟁이지만, 최근 2년간 꾸준히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통계이다. 또한, 극영화 제작수는 2016년, 2017년 각각 772편, 798편이며, 실제 극장에 상영된 극영화수는 전체 극영화의 약 40% 정도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통계는 관객수와 스크린수의 급증이다. 2016년, 2017년 관객수는 각각 13억 7천만명, 16억 2천만명이며, 평균관객수는 연 1회 정도로 미국 3.3회, 한국 4.25회, 프랑스 3.1회에 비해 저조한 편이지만, 13억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잠재적 영화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관객수의 급증은 영화관과 스크린수의 급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국의 스크린수는 50,776개로 전년보다 23.3% 늘어난 9,597개가 증가하였다. 매일 30개의 스크린이 만들어진 셈이다. 2017년 중국 극장에서는 총 9,469만회 영화 상영이 이뤄졌고, 이는 2016년 7,445만회보다 27.2% 많은 수치이다.

<표2> 2016년 흥행영화 상위 20위권<sup>9)</sup>

순위	영화명	장르	박스오피스(억 위안)	국가
1	미인어	코메디	33.9	중국
2	주토피아	SF	15.3	미국
3	워크래프트	SF/액션	14.7	미국
4	캡틴 아메리카	SF/액션	14.4	미국
5	몽키킹2: 서유기 백골정	환타지/액션	12	중국

8) 2016년도 미국 MPAA 통계에 의하면, 1위 북미시장 111억 달러, 2위 중국 68억 달러, 3위 영국 19억 달러, 4위 일본 18억 달러, 5위 인도 16억 달러, 6위 한국 15억 달러, 7위 프랑스 14억 달러, 8위 독일 13억 달러, 9위 러시아 9억 달러, 10위 호주/멕시코 9억 달러이다. 侯光明, 『中國電影產業發展報告』, 中國電影出版社, 2017. 10쪽.

9) 中國電影家協會理論評論委員會, 『2017中國電影藝術報告』, 中國電影出版社, 2017. 尹鴻, 『2017年中國電影備忘』, 『電影藝術』 379期, 2018. 4. 38-40쪽 참조.

6	메콩강행동	액션	11.7	중국
7	그레이트월	환타지/액션	11.7	중국
8	마카오풍운	액션	11.6	중국
9	도묘필기	공포	10.1	중국
10	쿵후팬더3	애니메이션	10	미국
11	정글북	환타지/액션	9.8	미국
12	절지도망	액션/코메디	8.8	중국
13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SF/액션	8.2	미국
14	종이적전세계로과	로맨스	8.1	중국
15	엽문3	액션	8	중국
16	엑스맨: 아포칼립스	SF/액션	8	미국
17	북 오브 러브	로맨스	7.8	중국
18	닥터스트레인지	SF/액션	7.5	미국
19	철도비호	액션/코메디	6.9	중국
20	콜드워2	액션/범죄	6.7	중국

〈표3〉 2017년 흥행영화 상위 20위권

순위	영화명	장르	박스오피스(억 위안)	국가
1	특수부대 전량2	액션/정쟁	56.7	중국
2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액션/범죄	26.7	미국
3	수수적철권	코메디/액션	22	중국
4	쿵푸요가	코메디/액션	17	중국
5	서유북요편	환타지/코메디	16	중국
6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SF/어드벤처	15	미국
7	당갈	스포츠/코메디	12.9	인도
8	방화	전쟁/로맨스	11.8	중국
9	캐리비안의 해적	SF/어드벤처	11.7	미국
10	쿵	SF/액션	11.6	미국
11	코코	애니메이션	11.5	미국
12	트리플엑스: 리턴즈	액션/범죄	11.2	미국
13	레지던트이블	SF/액션	11.1	미국
14	송풍과랑	로맨스	10.5	중국
15	슈퍼배드3	애니메이션	10.3	미국
16	스파이더맨: 홈커밍	SF/액션	7.7	미국

17	대노천축	SF/액션	7.6	중국
18	토르: 라그나로크	SF/액션	7.43	미국
19	혹성탈출: 종의전쟁	SF/액션	7.39	미국
20	로건	SF/액션	7.31	미국

최근 2년간 중국영화의 흥행 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흥행의 양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수의 대흥행 영화가 영화시장 흥행을 주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2, 표3>과 같이, 2017년 중국 박스오피스 상위 20위권에 든 중국영화는 7편으로, <특수부대 전량2>, <수수적철권(羞羞的铁拳)>, <쿵푸 요가>, <서유복요편(西游伏妖篇)> 등 일부 영화에 흥행 수익이 집중되어 있다. 10억 위안 이상 박스오피스 영화 9편 중 중국영화는 6편으로 이들 소수의 영화가 영화시장 흥행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69% 정도의 영화는 박스오피스 1,000만 위안 정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특수부대 전량2>는 역대 최고 흥행인 56억 7,875만 위안으로, 이전 최고 기록인 2016년 <미인어>의 33억 9,210만 위안을 훨씬 넘어섰다. 또한, 블록버스터 영화에 관객이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영화시장에서 상위권 흥행을 차지하는 대부분 영화는 중국 대작영화가거나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이다.<sup>10)</sup>

이와 같이, 최근 중국 영화시장은 영화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대규모 영화시장'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박스오피스의 성장, 관객수 증가, 스크린수 확대, 하이컨셉(high concept)의 블록버스터영화의 흥행, 장르영화의 시장 정착 등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대흥행 영화가 출현할 수 있는 영화환경이 조성되었다. 중국영화협회가, "최근 중국영화는 시장의 황금시대에서 창작의 황금시대로 흘러가고 있다(中國電影正在從市場的黃金時代走向創作的黃金時代)"고 선언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규모의 시장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sup>11)</sup>

10)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장르영화는 액션, 코메디, SF(환타지) 3종사이다. <표2, 3>의 상위권 영화의 주된 장르는 액션, 코메디, SF(환타지)이다. 기타, 중국 영화시장은 1-2월 춘절, 7월 여름방학, 10월 국경절 등 3대 성수기를 중심으로 높은 흥행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수부대 전량2>는 7월 27일 여름방학 시즌에 상영되어 대흥행을 기록했다.

11) 中國電影家協會理論評論委員會, 『2017中國電影藝術報告』, 中國電影出版社, 2017. 3쪽.

‘규모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흥행 영화의 규모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의 역대 최고 흥행 신기록 달성 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로스트 인 타이랜드(人再囹途之泰囧)〉 12.6억 위안, 2014년 〈몬스터 헌트(捉妖記)〉 24.4억 위안, 2016년 〈미인어〉 31.7억 위안, 그리고 2017년 〈특수부대 전량2〉 56.7억 위안으로 갈수록 역대 최고 흥행 규모가 점점 더 대규모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영화시장 규모 1위를 향해 질주해 나가고 있는 중국 영화산업의 급성장과 대규모 영화시장으로의 환경변화가 최근 〈특수부대 전량2〉(56.8억 위안), 〈홍해행동〉(36.5억 위안)와 같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대흥행 영화가 출현할 수 있는 산업적 요인이 되었다.

## 2) 정부의 정층설계(頂層設計) 강화와 ‘헤게모니 동의형 범주선율 영화’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중국영화는 ‘정부주도형 시장화 발전모델’ 속에 발전되어 왔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국가전략 속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영화산업의 ‘시장화와 개방화’를 추진해온, 탑-다운식의 정층설계 시스템이 영화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다.<sup>12)</sup> ‘정부주도형 시장화 발전모델’은 정부가 영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경제적 동기 외에, 검열제도와 행정개입을 통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영화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욕망이 작동하는 ‘지원과 통제’ 이중적 전략 속에 형성된 독특한 모델이다.

중국 정부의 영화계 개입은 그람시(A. Gramsci)의 ‘헤게모니론’과 알튀세르(L. Althusser)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SA,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영화시장 속에 자신들의 핵심적 이해관계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헤게모니 투쟁을 전개한다. 그람시 문화이론에 의하면, 문화와 영화영역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위한 텍스트 생산물들을 접합, 탈접합, 재접합하는 투쟁영역이며, 정부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동의와 설득’의 기제를 동원한다.<sup>13)</sup> 한편,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의하면<sup>14)</sup>, 지

12) 강내영, 『중국영화의 오늘: 영화대국에서 영화강국으로』, 산지니출판사, 2015. 78-82쪽

13) 존 스토리,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경문사, 2002. 146-148쪽.

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의해 주체(관객)가 호명됨(interpellated)으로써 재생산된다. 호명이란 프랑크 입법절차에서 나온 용어로서, 개인들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개인들을 생산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즉,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개인을 주체로 부르거나 호명"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라캉의 거울단계와 같이 스스로 정체성의 오인(misrecognition)을 수반하게 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의 영화는 원래 자본주의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지만, 역설적으로 중앙집중식 권력구조를 가진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영화텍스트와 관객(주체) 상호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sup>15)</sup>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한 '정부주도형 시장화 발전모델'은 영화산업을 정부 이데올로기 통제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 정부의 헤게모니를 위한 동의와 설득에서 나온 시스템이며,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와 같은 통제 방식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통제를 위해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명하달식 관료적 명령체계'로서 법률, 제도, 행정부의 명령체계에 의해 상시적으로 영화산업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검열제도'로서 두 단계에 걸친 검열제도, 즉 '사전제작허가증'과 '사후상영허가증'을 통해 시나리오 단계와 상영단계에서 정부는 영화에 대해 합법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다.

최근 중국정부의 영화정책 방향은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정층설계와 강화된 통제정책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종합적인 상위전략에 기초한 하위 부문들의 통합적인 개혁을 뜻하

14) 알튀세르는 구조주의적 마르크시즘 입장에서 지배계급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두 가지 경로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억압적 국가기구'로서 정부, 군대, 경찰, 법원, 감옥 등이고,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영화, 가정, 정당, 학교, 텔레비전, 문화제도 등이다. 알튀세르는 정통 마르크시즘에서 말하는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수정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 세 가지 심급에 의해 상대적 자율성 속에 중층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들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입장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능동적 개인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5) 로버트 랩슬리, 『현대영화이론』, 시각과 언어, 1996. 64-65쪽 참조.

는 정충설계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중국영화계는 당의 방침에 따라 즉각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했는데, 중국영화가협회 사무국장인 라오슈광은 “정충설계에 기초한 영화발전의 로드맵과 타임테이블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자”고 주장했다.<sup>16)</sup>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국정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보고〉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華民族偉大的復興, 中國夢)’을 실현하는 것이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이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과 구체적인 “4개전면(四個全面) 노선(전면 소강사회 건설, 전면 개혁심화, 전면 의법치국, 전면 엄격한 당체제 관리)”를 제시하였다. 문화 분야에 대한 보고에서는, “문화자신감(文化自信心)으로 사회주의 문화번영을 추구하자. 높은 문화자신이 없으면, 문화번영도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발전을 견지하고, 민족문화의 창신과 창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sup>17)</sup> 시진핑 주석은 문화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 실현을 위해 문화종사자들이 나설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월에 열린 「중국 ‘문학예술계연합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 및 ‘중국작가협회 제9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의 강화(在中國文聯十大, 中國作協九大開幕式上的講話)」에서 “문예사업은 당과 인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향후 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의 실현이다. 주선을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을 위해 풍성한 정신 양식을 제공하고 전 세계 만방에 중화문화의 매력을 알리자. 첫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자신감을 견지하자. 둘째,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고 시대를 이끄는 주체이다. 문예는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의 창신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예술을 통해 더욱 고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

16) 中國電影家協會產業研究中心, 『2012電影創意研究』, 中國電影出版社, 2013. 120-121쪽.

17) 人民日報社, 『黨的十九大報告』, 2017. 10. 中國社會科學院, 『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總任務: 偉大的復興』, 人民日報出版社, 2018. 鄧純東, 『新時代 新思潮, 新征程: 學習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人民日報出版社, 2018.

다.<sup>18)</sup>

당-국가체제(party-state)의 특징 속에 공산당의 지도방침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민첩하게 이어졌다. 영화분야 행정기구인 국가광전총국에서는 영화담당 장홍선 부국장의 직접 지휘 아래, 제19대 공산당 전당대회의 방침을 독려하고 있다.<sup>19)</sup> 또한,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건 〈홍해행동〉에 대한 극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지지했다.<sup>20)</sup>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영화에 대한 정층설계식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여러 정황에서 확인된다. 첫째, 「영화산업촉진법(中國電影產業促進法)」의 제정이다. 이 법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체제 정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지만, 동시에 정부의 영화계 개입을 정당화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촉진법」은 2016년 10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거쳐 2017년 3월 1일 정식 발효되었는데, 법안에는 ‘영화 심의 및 허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단수 영화제작증 제도의 폐지’, ‘입장권 수입 등 각종 관련 비리에 관한 처벌’, ‘2,860개의 현금 이상 지방정부에서는 영화산업 지원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영화 지원제도 정비’ 등이 들어있다. 「촉진법」은 중국 영화체제 정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21)</sup> 반면, 정부가 직접 영화계에 개입하여 단속 처벌하

18) 『電影藝術』, 中國電影家協會, 2017. 1期. 3-8쪽.

19)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의 제19대 전당대회의 영혼이자 핵심이다. 제19대 전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광전총국 당원과 간부가 참여하는 특별학습반을 설립하여 실천하자. 특별학습반에서는 올바른 국가이데올로기 사업을 위한 책임제를 견지하고, 당과 정부의 이데올로기 선전과 미디어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반 교육을 통해 당간부와 당원이 최우선적으로 시진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했으며,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张宏森出席总局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和党的十九大精神培训班」, 新闻出版广电总局网站, 2018. 4. 13.

20) “장홍선 부국장은 영화 〈홍해행동〉를 극찬하며, 린차오셴(林超賢) 감독을 진정한 영화인이라고 평가했다. 장홍선은 ‘강대한 조국, 강한 해군, 중국영화의 끝기를 위한 창작으로, 민족역량과 영화의 도리를 전면적으로 표현한 영화’라고 극찬하였다. 「영화 〈홍해행동〉은 민족역량과 영화의 도리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영화이다(广电副局长张宏森盛赞《江海》:诠释了民族力量)」, 1905电影网, 2018. 2. 24.

21) ‘촉진법’ 시행 이후 첫 조치로 국가광전총국은 3월 21일 입장권 수입 누락 및 조작 등 각종 관련 비리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51조에 따라 326개 극장에 대한 영업정지와 벌금 부과를 진행했다. 또한, 〈영화관 관람권시스템 관리실시세칙(電影院票務系統管理實施細則)〉을 발

고, 국가이데올로기 영화에 대해 지원과 포상을 확대하는 통제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정당화되었다. 둘째, 온라인 영화시장의 확대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sup>22)</sup> 온라인 영화는 2014년 450편, 2015년 689편, 2016년 2,193편이 상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17년에는 1,973편이 상영돼 전년보다 10%가량 줄어들었는데, 이는 최근 온라인 영화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더욱 엄격해진 개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sup>23)</sup> 셋째, 영화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16년 7월 국영중앙방송(CCTV)에서 중국 최대 극장기업인 완다의 해외 M&A를 “투자가 아닌 국부유출이자 역외탈세”라고 보도하면서, 완다그룹은 2017년 북유럽 최대 극장사업체인 노르딕 시네마의 지분 인수를 끝으로 사실상 해외투자를 잠정 중단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7년 8월 영화, 부동산, 호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의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 1월 ‘해외투자 민감업종 목록’에 영화를 포함시키면서 중국영화사의 해외투자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sup>24)</sup> 넷째, 한중합작영화에서도 정부의 통제

표하여 온라인 발권 절차와 극장 수익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제정부와 광전총국은 <중앙급 국가 영화사업 발전전용자금 예산관리방법(中央級國家電影事業發展專項資金預算管理辦法)>을 발표하며, 전년도 상영된 영화를 심사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고 600만 위안(약 9억9천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주로 국가이데올로기가 담긴 영화, 하이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제작한 영화, 우수한 애니메이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소재와 형식을 담은 영화 등이 지원 대상이다. 국가영화사업발전전용자금관리위원회도 <국산영화 상영성적 우수영화관 장려에 관한 통지(關於獎勵放映國產影片成績突出影院的通知)>를 발표하여, 전년도 전체 흥행에서 중국영화의 수익을 2/3 이상 올린 영화관에게 영화전용자금(電影專項資金)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 22) 2017년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유료회원 수는 1억 7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42.9%가 증가한 수치다. 2018년 2월 말까지 가장 많은 유료회원을 확보한 플랫폼은 텡선으로 6259만 명에 달했다. 2위는 회원 6010만명의 아이치이(爱奇艺)이다. 2017년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유료회원 매출액은 140억 위안(약 2조 3936억원)이며,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 23) 2017년 6월 1일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는 광전총국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시청프로그램 창작상영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한 통지(關於進一步加強網絡視聽節目創作管理的通知)」를 발표하여, 더욱 엄격해진 심사과정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20% 정도 탈락시켰다. 이에 따라, 6월 22일에는 신랑웨이보, 평황넷, 에이시펀(ACFUN) 등 SNS와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서비스가 폐쇄되었으며, 7월에는 ‘빌리빌리’사이트의 해외영화와 드라마가 삭제조치 당했다. 그 결과 2016년 209억 8,400만회에 달했던 온라인 영화 클릭수는 2017년 79억 4,600만회로 62.1%나 감소하게 되었다.

를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10월 싸드 문제가 발발하자, 2017년 2월 광전총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중국영화사의 한국과의 공동제작 및 합작사업을 전면 금지시킨 한한령(限韓令) 조치가 시행되었다. 싸드 이후 한중합작은 전면 중단되었으며, 한국영화는 중국에서 거의 상영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최근 정부의 영화산업과 시장시스템에 대한 관리와 통제도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영화시장 주체들은 정부의 더욱 막강해진 행정지도와 통제력을 고려하여 정부정책과 핵심가치관을 적극 수용하거나 타협적으로 협력하는 ‘헤게모니 동의형’ 양상을 따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상업영화는 정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서 정치이데올로기와 협력적 타협점을 찾는 ‘범주선율(汎主旋律)’ 가치관으로 제작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은 시진핑 지도부 이후 더욱 강화된 정부의 영화계 통제 속에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과 중국몽’이라는 정부이데올로기를 타협적으로 수용한 ‘헤게모니 동의형 영화’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 3) ‘중국몽’과 ‘글로벌 대국주의(Great Power Nationalism)’ 욕망의 현현(顯現)

〈특수부대 전량2〉과 〈홍해행동〉의 주제의식에서는 ‘글로벌 시대 중국의 대외적 지향점’과 ‘애국주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수부대 전량2〉은 전통적인 애국주의뿐 아니라 글로벌 보편주의 가치관을 적절하게 배합하며 이전 애국주의 영화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을 가상의 아프리카 해외국가로 설정한 것도 이전 중국영화에서 보기 힘든 글로벌한 설정이다. 또한, 중국 해군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만 UN의 승인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글로벌 군대로 묘사된다. 이러한 중국군에 대한 묘사는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국제법과 평화를 준수하는 정의롭고 공

24)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중국 영화산업 결산」, 2018. 5. 11쪽.

정한 글로벌 보편국가라는 중국식 욕망이 투사된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이 개인적 동기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설정도 새롭다. 링핑은 내전 발발로 위기에 처한 중국 교민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애국심의 발로뿐 아니라 살해된 여자친구에 대한 개인적 복수와 아프리카 친구의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한 휴머니즘의 동기에 의해 나서게 된다. 개인적인 동기와 휴머니즘에 의해 타인을 구출하러 가는 링핑의 캐릭터는 기존 미국 할리웃의 영웅캐릭터와 닮아 있다. 할리웃의 영웅캐릭터 양식을 차용하면서 인류보편적 가치인 휴머니즘을 실현해 나가는 인물은 이전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에서는 찾기 어려운 새로운 슈퍼히어로 캐릭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핵심적 주제의식은 여전히 '애국주의'이다.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는 중국국기인 오성홍기의 등장과 대사에서 반복적으로 표출된다. 〈사진1〉과 같이 극적인 장면마다 중국국기인 오성홍기가 등장하여 극의 분위기를 애국주의로 환기시킨다. 링핑이 공장을 되찾을 때 오성홍기를 게양하고, 마지막 탈출 장면에서 주인공은 오성홍기를 어깨에 두르고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내세운다. 대사에서도 중국의 자부심을 부각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아프리카 주민들은 “중국 해군 함정 안이 제일 안전해”라고 의지하며, 반군 대장조차 “중국인을 절대로 죽이면 안돼, UN상임이사국이야”라며 중국을 경외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사진2〉와 같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중국 여권을 클로즈업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께, 당신이 해외에서 위협에 처할 때, 절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뒤에는 강대한 조국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한다. 〈특수부대 전량2〉는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글로벌 시대의 국제평화와 인류보편적 휴머니즘을 새롭게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애국주의영화와 차별성이 있다.

〈홍해행동〉 또한 해외 아랍지역의 가상 국가를 공간적 배경으로, 중국 교민을 구출하는 특수부대원들의 활약을 다룬 액션영화이다. 부대원들은 UN승인 없이는 타국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으며, 보편적 세계평화와 국제법을 중시하는 정의롭고 책임감 강한 군인들이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해외 국가이며, 주인공들은 글로

별 보편가치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정의로운 군인들이라는 점에서 〈특수부대 전량 2〉와 같은 중국의 대외적 지향점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부대 전량2〉과는 달리 부대원들은 개인적인 동기를 배제한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한 군인들이다. 영화는 부대원들의 강인한 군인정신과 집단적 전투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부각한다.

이 영화 역시 중국국기인 오성홍기의 반복적 배치와 대사를 통해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노출하고 있다. 〈사진3, 4〉와 같이, 부대원들의 군복에 붙은 오성홍기가 자주 비춰지며, 희생한 부대원을 위한 추모식 장면에서는 대형 오성홍기가 휘날린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현재 일본 등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중국 해군이다. 이곳은 우리의 영해이다. 즉각 떠나라”라는 방송을 틀어주며, “강자무구, 강자무적”이라는 자막으로 끝맺는다.

〈홍해행동〉은 글로벌 시대 속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며 중국 교민들을 위해 싸우는 특수부대원들의 활약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수부대 전량2〉와 유사하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적 동기와 휴머니즘 대신 군인들의 투철한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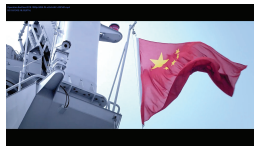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특수부대 전량2〉, 〈홍해행동〉의 대흥행 원인은 또 다른 애국주의 영화 〈건군대업〉과 비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건군대업〉은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헌정영화이며, 정부 주도로 제작한 전형적인 주선율 영화이다. 영화는

1927년 역사적 사건인 남창기의를 배경으로 당시 인물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영화는 공산당과 국민당을 각각 선과 악, 평화와 공포, 정의와 불의라는 이분법적 대립 속에 묘사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건군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특히, '산허바 작전'에서 공산당 주력군의 후퇴를 돕기 위해 죽음을 자처한 젊은 군인들의 사회주의혁명정신과 희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산허바 전투 추도식에서, "언젠가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해 복수할 것입니다"는 대사가 나오고, 〈사진5〉와 같이 "중국인민해방군 90주년에 바칩니다"는 자막으로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는 사회주의혁명과 애국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주선율영화이다.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하는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는 〈특수부대 전량2〉에서 강조하던 글로벌 보편가치로서의 휴머니즘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동족간의 비극적 내전이나 전쟁의 잔혹성을 성찰하기보다는 사회주의혁명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강조하는 당파적 이데올로기를 전면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수부대 전량2〉과 〈홍해행동〉을 〈건군대업〉과 비교분석하면, 이들 작품은 전쟁액션영화라는 점에서 같은 장르로 분류할 수 있지만, 첫째,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은 글로벌한 공간적 배경 속에서 인류보편적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주인공에 집중하는 반면, 〈건군대업〉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소수의 투철한 애국심에 중점을 둔다. 특히, 〈특수부대 전량2〉는 소수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임무를 자원하는 '소수를 위한 휴머니즘의 발로'인데 비해, 〈건군대업〉은 '사회주의혁명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다수의 애국주의'에 방점을 둔다. 둘째, 투철한 애국심을 실천하는 틀에 박힌 영웅상이 아닌 개인의 정의감과 내면에 기댄 인간적인 영웅상을 통해 관객의 공감을 넓혔다. 셋째, UN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글로벌 대국주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은 글로벌 시대 인류보편적 정의와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중국의 대외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영화이며, 글로벌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은밀한 욕망을 담은 세련된 애국주의 영화라 할 수 있다. 〈특수부대 전량2〉

와 〈홍해행동〉의 이러한 특징은 같은 애국주의 주제를 다룬 영화인 〈건군대업〉과는 상이한 대중의 반응을 얻었다. 2017년 7월과 2018년 2월에 개봉된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은 각각 중국영화역사상 1위, 2위의 대흥행을 기록한 반면, 〈건군대업〉은 4억 위안의 흥행으로 2017년 흥행 순위 40위에 머물렀다. 관객들은 역사적 사건을 다룬 도식적인 애국주의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글로벌 보편주의를 배합한 애국주의 영화를 더 선호한 것이다.<sup>25)</sup>

영화평론과 언론보도도 칭찬일색이다. 영화평론가 주쉬후이(朱旭輝)는, “중국의 대국굴기와 중국몽,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시대에 맞게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이미지 전파에 기여한 영화이며, 국가의 책임감과 휴머니즘의 국가형상을 실현한 영화이다”고 평가하며,<sup>26)</sup> 국방대학 교수 단칭성(澹慶生)은, “이들 두 영화는 대국굴기, 민족부흥의 시대성과 사회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인민들은 ‘떨쳐 일어나고’ ‘부강한’ 역사적 진보로의 감성을 느끼게 된다. 민족 자신감과 자부심이 이들 강렬한 애국주의 영화에 의해 펼쳐진다.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의 흥행 성공은 이와 같은 시대정신과 인민의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킨 결과이다”라고 극찬한다.<sup>27)</sup> 베이징대학 예술원장인 왕이촨은, “이 영화에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정(情)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며 책임감이다. 의(義)는 공정한 도리이다.

25) 통계 출처: 〈中国内地电影票房总排行〉, <https://www.douban.com/doulist/1295618/>, 2018. 6. 4. 이러한 결과는 ‘범주선율’ 상업영화의 유행과 ‘신주선율’ 영화의 퇴조라는 중국 영화시장의 새로운 경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은 정부이데올로기를 수용한 블록버스터 상업영화인 ‘범주선율’ 영화이다. 강내영에 의하면, 블록버스터 상업영화가 ‘범주선율’로 변환하게 된 배경은, 첫째, 국가권력이 영화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헤게모니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영화시장에서 대작 상업영화가 새로운 주류영화로 부상하면서, 대작 상업영화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공모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강내영, 『중국영화의 오늘』, 산지니출판사, 2015. 184-187쪽 참조.

26) 朱旭輝, 「〈戰狼II〉: 媒介文化的價值引領與空間場域的刑象表達」, 『電影藝術』 376期, 2017. 12. 42-43쪽.

27) “이 영화는 글로벌 시대 중국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글로벌 시대 속에 우리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표현이다. 개혁개방 이후 4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치며 주류이데올로기, 상업자본, 관객이 3위일체하며 새로운 경지를 열은 영화이다”. 澹慶生, 「新中國軍事動作片的類型演變」, 『電影藝術』 377期, 2017. 12. 18-19쪽. 擔慶生, 「新主流軍事電影引發全民關注」, 『光明日報』, 2018. 7. 5.

정의로 인해 개인이 국족(國族)과 하나가 되고, 그것이 국제주의와 하나가 된다. 사회적 신뢰의 위기, 관료들의 부패, 사회적 모순 등의 국내환경, 그리고 북한핵, 중남해 영토문제, 중동전쟁 등의 시대환경 속에 링펑의 액션은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한다”고 흥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sup>28)</sup>

결국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의 대흥행은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되, 시진핑 시대의 ‘중국몽’에 입각한 ‘글로벌 대국주의(great China)’와 ‘글로벌 보편주의 가치’를 담으면서 사회와 관객의 공감대를 넓힌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근현대사의 콤플렉스와 과거 중화제국의 자부심이 중첩된 ‘글로벌 대국’으로의 회귀 욕망을 전면에서 표출하고 있다.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중국의 욕망을 ‘중국몽’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몽’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2년 11월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진핑 시대를 대표하는 통치이념이 되었다.<sup>29)</sup>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도 중국몽을 32차례 언급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몽’에 따른 중국위협론에 대해 “중국은 절대로 헤게모니를 추구하거나 팽창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sup>30)</sup> 그런 점에서,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의 대흥행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몽’ 통치이념을 상징하는 영화이자 대중과 사회의 호응

28) 王一川, 「情義原則下的國族認同景觀」, 『電影藝術』 377期, 2017. 12. 28-29쪽.

29) 중국몽에는 국가부강(國家富強), 민족진흥(民族振興), 인민행복(人民幸福)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육상 및 해상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30)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2개의 ‘100년 목표’와 3가지 필수 경로라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첫 번째 100년 목표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 즉 2021년에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소강(小康)’이란 고대 중국인들의 이상사회로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사회를 말한다. 두 번째 100년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부강, 민주, 문명, 조화가 이루어진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3가지 필수 경로로, 첫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 둘째,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개혁(改革)과 창신(創新), 셋째, ‘중화민족 대단결’을 통한 중국역량 결집의 방침을 제시한다. 蒙慧, 『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 人民出版社, 2018. 4-5쪽.

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언급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과 애국주의, 인류공동체 공헌을 재현한 것이다.<sup>31)</sup> 영화 속 ‘글로벌 대국주의’는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집단적 자기애와 현시욕의 표출이며, 시진핑 시대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의 대흥행은 시진핑 시대의 화두(話頭)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이라는 통치이념과 범사회적인 호응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과 중국인의 ‘글로벌 대국주의’ 욕망과 집단적 자기애가 영화 속에 현현(顯現)한 것이다.

#### 4) ‘유사-할리웃 스타일(pseudo-hollywood style)’ 전략

<특수부대 전량2>, <홍해행동>의 가장 특징적인 영상스타일은 쉽고 대중적인 내러티브와 볼거리(spectacle) 전략에 있다. 두 영화는 해외에서 중국 교민을 구출하는 특수부대원의 활약을 다룬 단순한 이야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특수효과를 사용한 화려한 영상과 액션장면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할리웃 스타일(pseudo-hollywood style)의 특징을 보여준다. 할리웃의 전형을 의미하는 ‘고전적 할리웃 스타일(Classical Hollywood Style)’은 1917년부터 확립된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 스타일로서, 산업적으로는 분업화와 전문화에 기반한 표준화된 제작시스템을 말하며, 인과율에 의한 발단-전개-위기-절정-대단원의 내러티브 극적단계를 가지며, 180도 법칙(imaginary line)을 기본으로 하는 연속편집(continuity editing) 방식, 관객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르영화(genre film), 그리고 스타를 동원한 사회적 소비시스템을 갖춘 특징을 말하며,<sup>32)</sup> 주제적인 측면

31) 제19차 전당대회에서는 “반드시 국가이익을 기반으로 인민의 안전을 지향하고, 정치안전, 외부안전, 국토안전, 국민안전 등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계가 직면한 불안정한 과제들, 경제침체와 빈부격차 문제, 지역이 직면한 테러리즘, 전염병, 인터넷안전, 기후변화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은 세계에 공헌할 것이다”를 명시하고 있다. 程同順, 『新時代大國治理』, 湖北教育出版社, 2018. 180쪽.

32) 이용관 김지석, 『할리우드: 할리우드 영화의 산업과 이데올로기』, 제3문화사, 2000. 127-129쪽.

에서는 “계급과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sup>33)</sup>

1990년대 이후 할리우드는 ‘합병’과 ‘하이컨셉(high concept)’ 시대를 열고 있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생존하기 위해 수직적, 수평적 통합(integration)을 추진하였다.<sup>34)</sup> 2000년대 이후 할리우드는 ‘하이컨셉’을 갖춘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저스틴 와이어트(Justin Wyatt)에 의하면, 하이컨셉이란 “한 두 문장으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장성을 갖춘 엔터테인먼트 영화”이며, 쉬운 내러티브 구조와 스타를 기용한 캐릭터 이미지를 통해 하이컨셉 스타일을 구축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영화 제작방식을 의미한다.<sup>35)</sup> 피터 바트(Peter Bart)는 하이컨셉 시대로 접어든 할리우트의 시장경쟁을 ‘블록버스터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다.<sup>36)</sup> 그런 점에서,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는 이러한 할리웃 스타일을 차용한 ‘유사-할리웃 스타일(pseudo-hollywood style)’ 영화라 할 수 있다.

첫째, 쉽고 대중적인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 주선율영화 <건군대업>이 ‘남창기의’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상세히 서술하는데 주력하는데 비해, 두 영화는 외국에서 특수부대원들이 교민을 구출하는 쉽고 단순한 서사를 갖추고 있다.

둘째, 특수효과와 화려한 영상을 동원한 웰메이드(well-made) 영화를 지향한다. <특수부대 전량2>에서는 <사진6, 7>과 같이, 수중 촬영을 동원한 수중액션장면, 날아가는 총알을 슬로우모션으로 보여주는 화려한 전투장면을 보여준다. <홍해행동>에서는 <사진8>과 같이, 포탄이 날아오는 장면과 폭탄에 쏘구친 부대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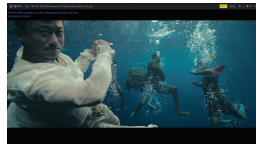
33) D. Bordwell, 『The Classical Hollywood Cinema: Film Style & Mode of Production to 1960』,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3-5쪽.

34) 워너브라더스는 1989년 언론과 방송에 기반을 둔 타임사와 전격 합병하였고, 디즈니사는 부에나비스타, 터치스톤, 미라맥스 외에 방송사인 ABC를 합병하였고, 컬럼비아는 소니사에 의해 트라이스타영화사를 병합하였으며, 20세기폭스사는 폭스방송과 언론을 합병하였고, 유니버설은 NBC방송을 합병하는 등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는 글로벌 미디어사와 수직적 수평적 합병을 시도하였다. 또한, 1억 5천 달러가 투입된 <아마겟돈>(1998), 2억 달러가 투입된 <타이타닉>(1998), 3억 달러가 투입된 <캐러비안의 해적3: 세상의 끝에서>(2007) 등과 같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하이컨셉’ 영화들이 할리우트의 주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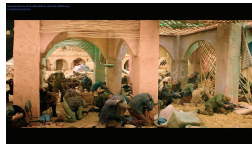
35) 저스틴 와이어트, 『하이컨셉: 할리우드영화 마케팅』, 아침이슬, 2004. 28쪽.

36) 피터 바트, 『할리우트의 영화전략』, 을유문화사, 2001. 359쪽.

면을 슬로우모션으로 보여주며 긴장감과 박진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사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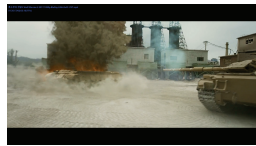


〈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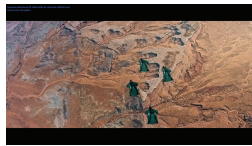


〈사진 8〉

셋째, 관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볼거리(spectacle) 전략을 차용했다. 〈사진 9, 10, 11〉과 같이 대규모 군인을 동원한 전투장면, 탱크전 장면, 공중낙하 장면, 모래폭풍 장면을 삽입하여 관객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사진 9〉



〈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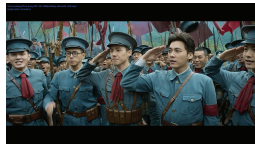


〈사진 11〉

넷째, 할리웃의 전형인 연속편집을 주요한 편집기법으로 활용하여, 속도감 있는 빠른 편집과 교차편집을 통해 영화 속 긴박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수부대 전량2〉에서는 전투 중심의 스피디한 영상편집으로 극적 긴박감을 높여주고 있으며, 〈홍해행동〉에서는 1개 씬(scene)에 3-4개의 전투 장면을 배치하여 교대로 보여주는 교차편집 방식으로 빠르고 긴박감 넘치는 전투장면을 보여준다.

다섯째, 〈사진12, 13〉과 같이 젊고 잘 생긴 스타배우를 주인공으로 배치하여 관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인다. 〈특수부대 전량2〉에서는 정의감 넘치는 매력적인 중국공장 사장役に 인기배우 장한(張翰)을 캐스팅했으며, 〈홍해행동〉에서는 장이(張譯), 황정륜(黃景掄) 등 젊은 스타배우들을 주인공으로 기용하였다. 〈건군대업〉에서는 26살 리우오란(劉昊然), 21살 어우하우(歐豪) 등 젊고 잘 생긴 배우들의 캐스팅을 아예 영화의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 캐릭터에 사랑이나 고뇌 등의 개성을 불어 넣는 캐릭터 전략을 차용하여 관객들의 공감대를 넓혔

다.<sup>37)</sup> 이러한 젊은 스타배우의 기용은 젊은 관객층을 소구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힌다.<sup>38)</sup>



〈사진 12〉



〈사진 13〉

중국 영화평론계와 학계에서는 ‘유사-할리웃’ 전략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화평론가 주쉬후이는, “〈특수부대 전량2〉는 할리웃 수퍼히어로 양식을 참조로 하여 중국 본토 현실과 결합한 영웅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신형 상업주류대작”으로 극찬하고 있으며,<sup>39)</sup> 중국예술원 손구이산 연구원은, “〈특수부대 전량2〉의 대성공과 〈홍해행동〉와 같은 영화는 주선울 영화의 새로운 경지를 제시하는 영화이다. 할리웃의 〈007〉시리즈, 〈미션 임파서블〉시리즈, 〈제이슨 본〉시리즈와 같이 민족, 종교, 주권 문제 등을 다루는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40)</sup> 베이징영화학원 문학과 종다평

37) “이들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 것은 주선울 창작방식으로 제작되었지만, 주인공 인물들의 구성과 내면 심리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주인공들은 기존 주선울 영화처럼 완전한 고상한 인물이 아니라, 선명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다. 〈특수부대 전량2〉의 링핑은 맹목적인 복종을 하는 군인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신세대 군인이다. 그는 살해당한 여자친구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임무를 수행한다. 〈홍해행동〉의 전사 스토우는 동료 여전우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면서, 젊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擔慶生, 「新主流軍事電影引發全民關注」, 『光明日報』, 2018. 7. 5.

38) 영화학자 천창예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중국 관객층은 젊은 관객층의 취향 위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바링허우(80後)는 1억 4천만명, 지우링허우(90後)는 1억 6천만, 링링허우(00後)는 7천만명으로, 1999-2002년에는 치링허우(70後), 2003-2005년에는 바링허우, 2006-2010년에는 바링허우와 지우링허우, 2011-2017년 지우링허우가 영화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영화시장은 바링허우, 지우링허우, 링링허우 3세대의 취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세대의 취향을 반영하여 게임, 액션, SF(환타지), VR과 아이맥스 등 새로운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陳昌業, 「電影觀眾的代際轉換: 80後, 90後, 00後的電影消費偏好研究」, 『電影藝術』 377期, 2017. 12. 87-90쪽.

39) 朱旭輝, 「〈戰狼II〉: 媒介文化的價值引領與空間場域的刑象表達」, 『電影藝術』 376期, 2017. 12. 42-43쪽.

40) 孫桂山, 「三十年“主旋律”的歷史臨界及其未來」, 『電影藝術』 377期, 2017. 12. 79쪽.

교수는, “액션영화는 액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캐릭터와 서사구조와의 일체성이 중요하다. 〈특수부대 전량2〉의 성공은 중국영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주선을 영화의 상업적 스타일 차용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sup>41)</sup> 국방대학의 단칭성 교수는, “〈특수부대 전량2〉과 〈홍해행동〉은 주선을 소재와 상업장르영화 사이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완성된 영화이며, 오락성과 스펙타클전략을 구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sup>42)</sup>

영화미학과 스타일 양식이라는 측면에 볼 때,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은 ‘쉽고 대중적인 내러티브’, ‘특수효과와 영상기술을 활용한 웰메이드 영화’, ‘스펙타클한 전투장면’, ‘속도감 있는 빠른 편집’, ‘스타배우 기용’ 등 유사 할리웃 스타일(pseudo-hollywood style)을 차용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중국식 하이 컨셉’ 영화를 개척하였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을 중심으로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영화의 열풍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영화산업의 급성장과 ‘영화시장의 대규모화’가 이들 대홍행 영화가 출현 수 있는 산업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시진핑 시대 이후 영화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영화시장 주체들은 정부의 더욱 막강해진 통제력과 협력적 공모관계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은 시진핑 시대의 통치이념인 ‘중국몽’이라는 정부이데올로기를 수용한 ‘헤게모니 동의형 영화’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셋째, 중국인의 ‘글로벌 대국주의’ 욕망과 집단적 자기애가 영화 속에 현현(顯現)하며 대홍행의 원인이 되었다. 〈특수부대 전량2〉과 〈홍해행동〉은 시진핑 시대의 화두(話頭)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이라는 통치이념과 범사회적인 대중들의 욕망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넷째, 영화

41) 鐘大豐, 「作為類型的動作片: 動作, 人物與情節」, 『電影藝術』 377期, 2017. 12. 34-36쪽.

42) 擔慶生, 「新主流軍事電影引發全民關注」, 『光明日報』, 2018. 7. 5.

미학적으로 ‘유사 할리웃 스타일(pseudo-hollywood style)’을 차용한 새로운 ‘중국식 하이컨셉’ 영화를 선보이며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결론적으로, 〈특수부대 전량2〉, 〈홍해행동〉와 같은 최근 애국주의 영화 열풍 현상은 시진핑 시대의 통치이념인 ‘중국몽’이 ‘정부-영화산업-관객’의 집체적 열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출현한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건군대업〉과의 흥행 차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순한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유사-할리웃 전략과 같은 대중적 영화미학으로의 새로운 시도가 또다른 대흥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부대 전량2〉과 〈홍해행동〉의 열풍 속에 향후 이들 영화가 스펠오프(spun-off), 프리퀄(prequel), 시퀀(sequel) 같은 할리웃 마케팅 전략으로 계속 진화하며 중국영화사의 새로운 전기를 써내려갈 것인지가 새로운 영화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두 작품의 대흥행에 힘입어 현재 다양한 방식의 후속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sup>43)</sup> 이러한 흐름이 미국 할리웃의 〈마블 코믹스〉, 〈해리포터〉, 〈스타워즈〉, 〈제이슨 본〉 시리즈와 유사한 영화마케팅 방식으로 진화하여 새로운 ‘중국식 프랜차이즈 영화모델(Chinese Franchise Film Model)’로 성공한다면 중국 영화사에 의미있는 영화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에서 비롯된 ‘애국주의’ 영화의 열풍이 중국사회에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시진핑 시대의 영화풍경으로 잠시 반짝거리다 사라진 장르영화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중국식 장르모델을 창출할 것인지는 결국 중국 대중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43)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해행동〉을 제작한 보나영화사 대표 위동(于冬)은 영화 〈홍해행동〉에 이어 TV드라마 〈홍해행동〉시리즈 40집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홍해행동〉을 감독한 홍콩 감독 린차오셴이 “속편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후속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특수부대 전량2〉의 감독이자 주인공을 맡았던 우징은, “후속편 〈특수부대 전량2I〉이 이미 정부의 시나리오 심사를 통과했으며 자신은 감독만 맡기로 했다”고 근황을 밝히고 있다. 鳳凰網, 「〈紅海行動2〉開拍? 林超賢: 沒有拍攝計劃」, 2018. 6. 9. 搜狐, 「〈戰狼3〉審查通過, 吳京因傷不能繼續出演換成他」, 2018. 7. 2.

〈參考文獻〉

- 강내영, 『중국영화의 오늘: 영화대국에서 영화강국으로』, 산지니출판사, 2015.
- 로버트 램슬리, 『현대영화이론』, 시각과 언어, 1996.
-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중국 영화산업 결산」, 2018. 5. 11쪽.
- 저스틴 와이어드, 『하이컨셉: 할리우드영화 마케팅』, 아침이슬, 2004.
- 존 스토리,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경문사, 2002.
- 피터 바트, 『할리웃의 영화전략』, 을유문화사, 2001.
- 蒙慧, 『中華民族偉大復興의“中國夢”』, 人民出版社, 2018.
- 程同順, 『新時代大國治理』, 湖北教育出版社, 2018.
- 人民日報社, 『黨的十九大報告』, 2017.
- 中國社會科學院, 『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總任務: 偉大的復興』, 人民日報出版社, 2018.
- 鄧純東, 『新時代 新思潮, 新征程: 學習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人民日報出版社, 2018.
- 候光明, 『中國電影產業發展報告』, 中國電影出版社, 2017.
- 中國電影家協會理論評論委員會, 『2017中國電影藝術報告』, 中國電影出版社, 2017.
- 尹鴻, 「2017年中國電影備忘」, 『電影藝術』 379期, 2018. 4.
- 朱旭輝, 「〈戰狼II〉: 媒介文化的價值引領與空間場域的刑象表達」, 『電影藝術』 376期, 2017. 12.
- 澹慶生, 「新中國軍事動作片的類型演變」, 『電影藝術』 377期, 2017. 12.
- 王一川, 「情義原則下的國族認同景觀」, 『電影藝術』 377期, 2017. 12.
- 陳昌業, 「電影觀眾的代際轉換: 80後, 90後, 00後的電影消費偏好研究」, 『電影藝術』 377期, 2017. 12.
- 鐘大豐, 「作為類型的動作片: 動作, 人物與情節」, 『電影藝術』 377期, 2017. 12.
- 鳳凰網, 「〈紅海行動2〉開拍? 林超賢: 沒有拍攝計劃」, 2018. 6. 9.
- 搜狐, 「〈戰狼3〉審查通過, 吳京因傷不能續繼出演換成他」, 2018. 7. 2.
- 「張宏森出席總局深入學習貫徹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和黨的十九大精神培訓班」, 新聞出版广电總局網站, 2018. 4. 13.
- 「广电副局長張宏森盛贊《紅海》: 詮釋了民族力量」, 1905電影網, 2018. 2. 24.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 of Patriotism Movie in China  
- Centering on 〈Wolf Warrior II〉(2017), 〈Operation Red Sea〉(2018)

Kang, Na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rend of patriotism movie in China. For this study, analyzed 〈Wolf Warrior II〉(2017) and 〈Operation Red Sea〉(2018) which accomplish the highest box office record in Chinese film history, And explored features of his esthetics, thematic consciousness, the contextual meanings. In this study, firstly analyzed cinematic trait by way of concrete text critics, And analyzed main cause of fashion and social means by way of context critics.

As a result, find the main cause of trend in film industry, film policy, thematic consciousness, esthetic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film industry and market, appear big box office movies. Secondly, after Chinese president Xi era, the more government regulate about film, the more filmdom cooperate with each other. 〈Wolf Warrior II〉 and 〈Operation Red Sea〉 accept the national ideology of 'Renaissance of Great China and Chinese Dream' by government. Thirdly, in thematic consciousness, the chinese wish of 'Global Great China' led to be successful in box office. 'Global Great China' represent chinese collective desire. Fourthly, in esthetics, receive cheer by the audience in terms of 'Pseudo-Hollywood strategy' which include 'easy and interesting narrative', 'well-made by high technology and VFX', 'spectacle scenes', 'casting stars', etc.

Therefore, latest trend of patriotism movie 〈Wolf WarriorII〉, 〈Operation Red Sea〉 in China represent the spirit of the 'Chinese president Xi' age, and as a result of collective interaction in 'government, film industry, movies, audience'.

Key words: Wolf WarriorII, Operation Red Sea, Chinese Dream, Chinese Film, Film Industry, Nationalism, Hollywood, High Concept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중국에서 ‘애국주의’ 영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의 분석을 통해, 흥행의 요인과 사회맥락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중국영화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를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애국주의’ 영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영화텍스트(text) 분석을 수행하여 흥행의 영화적 요인과 특징을 규명하고, 또한, 컨텍스트(context)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영화 흥행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화산업, 영화정책, 영화미학, 주제의식이라는 4가지 층위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영화산업과 급성장과 ‘영화시장의 대규모화’가 대흥행 영화가 출현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둘째, 시진핑 시대 이후 영화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면서, 영화시장 주체들은 정부의 더욱 막강해진 통제력과 협력적 공모관계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는 시진핑 시대의 통치이념인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몽’이라는 정부이데올로기를 수용한 ‘헤게모니 동의형 범주 선을 영화’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셋째, 중국과 중국인의 ‘글로벌 대국주의’의 욕망과 집단적 자기애가 영화 속에 현현(显现)하며 대흥행으로 이어졌다. 영화 속 ‘글로벌 대국주의’는 시진핑 시대의 통치이념인 ‘중국몽’의 핵심내용이며, 중국의 집단적 자기애와 현시욕의 표출이기도 하다. 넷째, 영화미학적으로는 〈특수부대 전량2〉와 〈홍해행동〉는 ‘쉽고 대중적인 내러티브’, ‘특수효과와 영상기술을 활용한 웰메이드 영화’, ‘스펙타클한 전투장면’, ‘속도감 있는 빠른 편집’, ‘스타배우 기용’ 등 유사 할리웃 스타일(pseudo-hollywood style)을 차용한 새로운 ‘중국식 하이컨셉’ 영화를 선보이며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이, 최근 애국주의 영화의 열풍 현상은 시진핑 시대의 통치이념인 ‘중국몽’이 중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영화산업-작품-관객’의 집체적 열기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주제어: 특수부대 전량2, 홍해행동, 중국영화, 중국몽, 애국주의, 이데올로기, 영화산업, 할리웃, 하이컨셉

이 논문은 2018년 7월 11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